

모성애적 사랑의 모순

유 회 현 · 유희현 산부인과 원장

“정 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전… 그이를 정말로 사랑 했는데… 3년 동안 그이 뒷바라지만 했는데…”

그녀는 목이 메이고 억장이 무너지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남자가 떠나 버리고 난 뒤, 알게 된 아이를 어찌지 못해 고민 끝에 병원에 내원한 것이다.

그녀가 그를 만난 것은 수년 전, 그녀가 백의의 천사라는 자부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 간호사로서 병원에 있을 때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그녀의 생활에 그가 중환자의 상태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는 고열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댔고, 보호자도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그런 그가 너무 안쓰러워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어느 봄 날, 햇빛이 따사로운 오후에 그녀는 그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잔디밭으로 나갔다.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꽃내음이 가득하니 그녀도 오랜 만에 아름다운 감상에 흠뻑 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날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 것이다. 그녀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미래의 전주곡이 된 것이다. 그는 그 햇살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얼굴도, 마음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따스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당신만큼 제게 잘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향은 대구인데 부모님은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자라라며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그때 2년이라는 세월을 사법고시 준비로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측은하고 애처롭기 그지 없었다. 그녀 또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간호사가 되기까지 너무나

도 힘들었던 세월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날 이후로 그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보살펴 주었다. 그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에게 자신의 꿈 얘기며 마음 속의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어느 덧 그가 퇴원을 하고 그녀와 그는 간호사와 환자로서의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서 데이트를 즐겼다. 결국 그들은 어른들의 허락없이 곧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집안 일과 더불어 병원일도 성실히 해 나갔다. 고시 후에 꼭 결혼하지는 약속과 함께 그녀의 자취방이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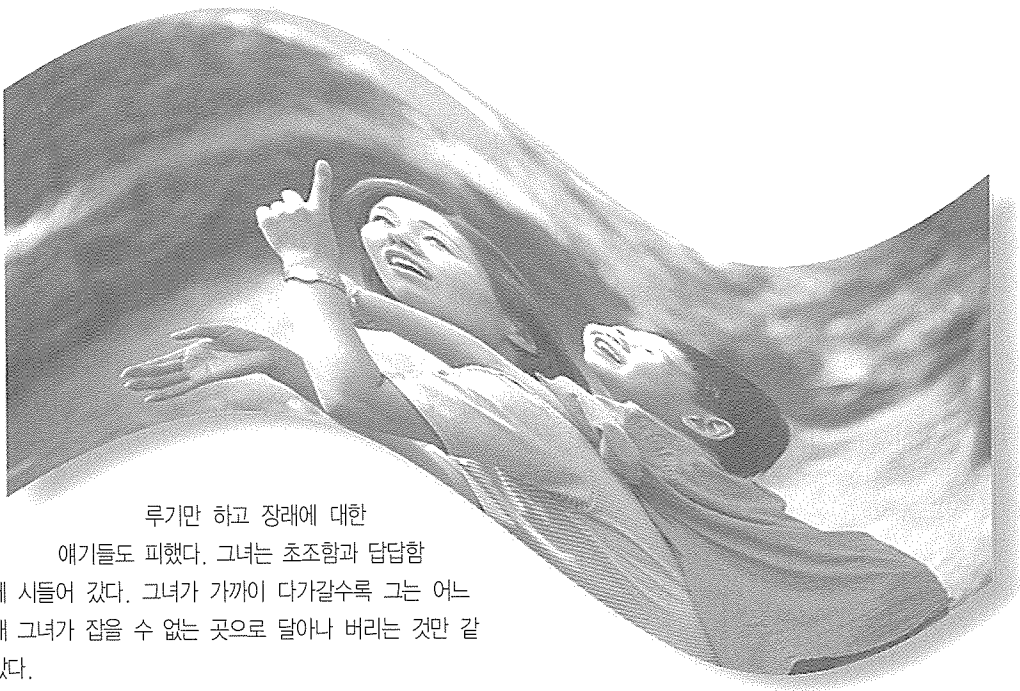
3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고 그날 그들은 끌어안고 밤 새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오랜 세월,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험난한 사회에서 얻은 성공에 목이 메인 것이다.

그는 곧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도 이제 한시름을 놓게 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는 전화 연락조차 좀처럼 하는 일이 없었다. 바쁘겠거니 했지만 그녀는 섭섭하기 그지없었고 그녀가 견디다 못 해 전화를 하면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귀찮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많이 바쁠꺼야. 그럼 나도 이려고 있을 수만은 없지.’

그녀는 점차 pansa 부인이 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에 걸맞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때부터 꽃꽂이이며 요리 등을 배우러 다니면서 결혼식과 자녀에 관한 계획도 세웠다. 그런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고 벽차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면 말도 안하고 그녀를 무시했다. 결혼 얘기도 자꾸 미



루기만 하고 장래에 대한

얘기들도 피했다. 그녀는 초조함과 답답함에 시들어 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어느새 그녀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입을 열었다.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 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난 당신이 너무 잘 해주는 게 싫지 않았어. 어느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 싫다고 하겠어? 그래서 같이 지냈지만, 이젠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당신은 아직 젊고 생활력도 강하니 다른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꺼야.”

“그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버려 두고 그는 냉정히 떠났다. 그녀는 수 일을 눈물로 지냈고 나중엔 눈물을 흘릴 기운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되어 버렸다.

“선생님, 전 그의 가능성을 사랑했어요. 제가 돌보아 주고 사랑을 주면 된다고… 그렇게…”

그녀는 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오직 그녀가 진정으로 그를 돌보아 주고 헌신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그의 참된 자질이나 인간성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 보지 못한 면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는 마치 그녀가 선택하여 가꾸고 거름을 주는 화분처럼 그녀가 하는 대로 그저 구경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모성애가 강하다. 그들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 동정심이나 희생을 사랑으로 여겼다가 거기에 상

처 입는 경우가 많다. 또 남자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할 기회나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사랑 쌓기에 골몰하는 것이다.

그녀 또한 그에게는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만의 이론을 확립한 채 그를 위해 봉사했던 것이다. 남자는 그저 장식을 위한, 자신에게 희생과 봉사의 기쁨을 주기 위한 예쁜 화분으로 장식해 놓은 채…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남자들을 위한, 오직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남성들이 떠나게 되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등으로 자신의 원한을 깊게 한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던가?

사랑이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포근하고 조용히 흘러 서로의 영혼을 물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에서 일방 통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에 구속시키고 눈과 귀와 마음을 달아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 서글픈 여인의 뒷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3444-0318) ㉞